

尹 반성은커녕 거짓말·궤변만...헌재, 조속히 파면해야

탄핵심판 최후진술 지역민 공분...헌법 위반에도 계엄 정당화 분노 “파면 결정 나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다시 복귀할까 불안감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하고도 반성은커녕 야당 탓만 하고 여전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김선희(여·48)씨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지켜본 뒤 분노와 불안감으로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 진압한 것을 온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거적인 결정으로 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를 혼들어놓고 사

과도 제대로 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또 “화도 나지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찌 하는 생각도 든다. 복귀하면 당연히 2차, 3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남구 백운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50)씨는 “윤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지만 여러 증언을 통해 부실한 국무회의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헌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중국과 간첩을 운운해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우리 사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을 유린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해 폭동을 조장하는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광주비상행동)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한 일은 대통령직 복귀라는 헛된 꿈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거짓과 망상으로 헌재를 내란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단행하고 조기 퇴진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길은 파면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광주 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구시대적 이념 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헌정질서 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비상계엄이 정적 제거와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화 광주시민센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야당 탓, 중국 탓, 누군가의 탓만 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며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헌은 민의를 모아 야당과 협치를 해야 겨우 가능한 일이다. 개헌을 파면을 피하기 위한 카드로 쓰려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민 광주전남총불행동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무리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 언제라도 극우세력을 선동해 폭동을 조장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며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오월 단체도 “윤 대통령의 파면이 당연하다”면서 헌재에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참담한 심정까지 들었다”며 “오월단체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윤 대통령의 독재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재에도 이 중대한 역사적 심판에 대해 반드시 정당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야당 탓이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명백히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헌법만 나온다”면서도 “특히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게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사회가 양분되기 전에 빠른 헌재의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집회) 복환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니냐”며 노동단체 탓을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노동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아직도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간첩으로 몰고,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시민들의 집회마저도 복환의 지령이라고 하니 2년 6개월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맞나 싶다”며 “헌정을 흔들고 선동을 일삼으며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판을 견인하는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전진숙·박군택·정준호·박주민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전남도 올해 지방공무원 1663명 신규 채용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1663명을 신규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광주·전남 등 17개 시도에서 총 1만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작년(1만6333명)보다 8.2%(1332명) 늘었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05명과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도 함께 뽑는다.

시도별로는 광주 244명, 전남 1419명, 경기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등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직종별로 7급 10명, 8·9급 184명, 연구지도직 16명, 임기제 34명을, 전남도는 7급 53명, 8·9급 1287명, 연구지도직 54명, 임기제 25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8·9급 공채시험의 경우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초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 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이 6월 21일, 7급이 11월 1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사이트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 국회토론회

강 시장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 광주가 앞장서겠다”

광주연구원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포용성장도시 광주모델’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인 기본사회를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포용성장 도시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연구원, 민주연구원,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남인순·박주민·서영석·양부남 국회의원,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

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대전환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기본사회의 구성 가치와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진 종합토론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광주형 포용성장 모델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적으로 광주는 늘 민주주의 도시였다”면서 “민주주의의 표준이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본사회의 모델을 만드는 일 역시 광주가 가장 먼저 앞장서 실천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에 아이맘·미래 아동병원

광주시는 26일 광주기독병원(남구), 광주센트럴병원(광산구)에 이어 복구 아이맘아동병원과 복구미래아동병원을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구와 인근 지역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365일 의료 취약 시간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가 가능해졌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집에서 가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 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4만727명의 소아환자가 전문 진료를 받았다.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은 오는 4월 1일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평일 야간 및 휴일 시간대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일 중 월·화·수요일은 아이맘아동병원, 목·금요일은 미래아동병원에서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토·일·공휴일은 두 병원 모두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 ‘다나온누리약국’과 ‘아이사랑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내과 가정의학 일반의 이비인후과

개업원장님모심
병원급 개원도 가능
10년 내과원장 3명 운영, 임대종료.

군산 중심가 롯데마트 앞

주차완비, 2층 190py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